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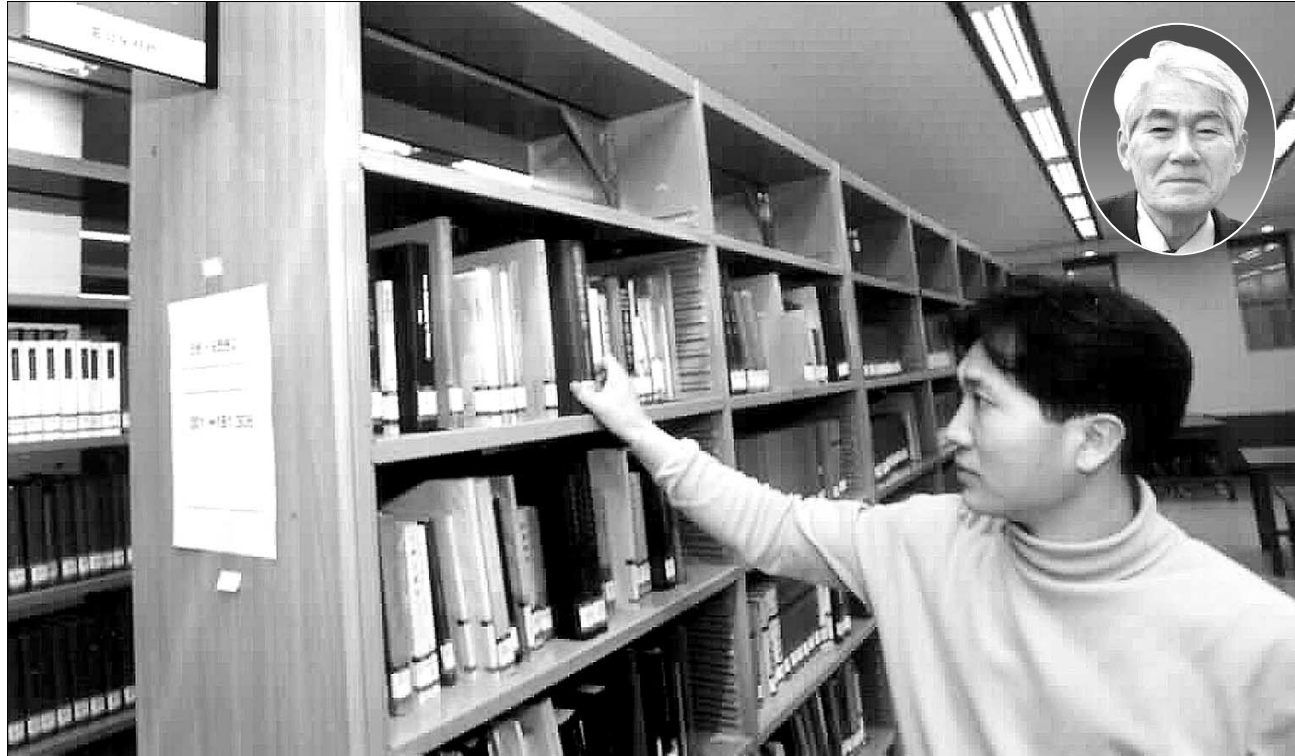
중국사상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교토대학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고(故) 시마다겐지(島田虔次) 교수가 평생 모은 3만여권의 장서를 동국대에 기증했다.

동국대는 시마다겐지 교수가 기증한 4천여책을 넘는 귀중한 고서를 비롯하여 2만여 권에 이르는 동양서, 5백여권의 서양서, 6백5십여종 6천여권의 정기간행물 등 총 3만여권으로 시마다겐지 문고(島田虔次文庫)를 신축 중앙도서관에 마련했다. 시마다겐지문고 개관식은 27일 중앙도서관에서 열리며, 시마다겐지 교수의 부인 시마다 모토코 여사 등 유족들에게 감사패를 전달 예정이다.

시마다겐지 교수 유족들이 기증한 장서들은 중국사상사를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료와 연구서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 3월 81세의 일기로 사망한 시마다겐지 교수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빈곤한 시절부터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서 동서양의 중국사상사 관련 책을 수집했다. 그래서 부인 시마다 모토코 여사와 두 딸을 비롯한 유족, 선생의 고제들은 장서가 흩어지지 않고, 문고 이용도가 높아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증상태를 찾았다. 그러던 중 2000년 3월 고인의 제자이며, 교토대학 문학부 초빙학자였던 동국대 역사교육과 정태섭(53)교수에게 장서기증 의향을 전했다.

정태섭 교수는 "일본학자에 의해 중국사상사 연구를 위한 귀히 뛰어난 관련도서의 집성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그

日 시마다겐지 전 교토大교수 장서 3만권 동국대 기증



◁시마다겐지 전 교토대 교수(오른쪽 위)가 기증한 3만권의 장서로 마련된 동국대 중앙도서관 시마다겐지문고.

신축중앙도서관에 '시마다겐지 문고'

대로 한국으로 건너왔다"며 "이 문고를 계기로 많은 학자들과 문화교류에 공헌할 문화인들이 배출되어 동아시아 삼국국의 학문과 우호친선에 도움이 될 것을 기

원한다"고 말했다.

시마다겐지 교수는 1917년 히로시마현(廣島縣) 출신으로 1941년도에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했다. 시마다겐지 교수는 엄격한 한문독해를 극히 중시하는 교토학파를 만들어 한학에 정통한 뛰어난 중국사 연구자를 많이 배출했다. 주요저서로는 <중국에 있어서 근대사유의 좌절> <중국사상사 연구>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김원우 기자 wkwim@buddhania.com

봉선사 본·말사 환경위원회 구성

북한산 우회노선 관철운동 등 전개

"우리 지역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15일 교구 본·말사 환경위원회(위원장 일면·봉선사 주지)를 결성하고 수행 환경 및 지역 환경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제25교구 환경위원회는 교구 내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산 관동도로 우회노선 관철 지지, 용문산 항토민속 박물관 건립 전면 재검토를 올해 사업 목표로 설정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광릉

숲 보존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 전개, 말사 환경 침해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사찰이 먼저 친환경적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위원회에는 일면 스님을 위원장으로 본·말사 스님 20여 명과 우이령보존회 조상회 부회장, 광릉숲보존회 간사 한상태 교수 등 지역 환경전문가 4명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권형진 기자

법주사 팔상전 상륜부

월말부터 보수작업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목조5층탑인 법주사 팔상전(국보 55호)의 상륜부가 이달 말부터 보수에 들어간다.

법주사주지 지명은 최근 "상륜부를

받치는 철제받침에 균열이 일어나고 쇠사슬이 부식돼 교체하기로 했다"며 "깨어진 상륜부의 보류 부분도 보존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보수 기간은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형진 기자

광주 미륵복지원 개원

노인에 도시락·무료진료 지원

독거노인 일자리 마련, 소외여성 직업창출을 위한 전통음식 개발 판매 등 생 산적 복지활동이 광주에서 전개된다. 미륵사주지 청안)는 11일 광주시 용산동 뉴스코마트 2층에서 미륵복지원 개원식을 갖고, 불우노인 일자리 마련과 도시락 지원, 매주 1회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진료사업과 풍수수매 강좌 등을 중심으로 한 교

육사업 등 노인 복지 사업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또 소외여성 직업창출과 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전통 음식 개발과 판매에 주력하는 미륵식품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륵식품 운영 수익금은 소년소녀가장의 생활비와 학비 지원, 인재양성 장학기금으로 사용된다.

김원우 기자

지리산 희생자들 위령

1000일기도 700일 회향

지리산 좌이념대립 희생자를 위령하고 생명평화·민족화해·평화통일을 위한 1000일 기도 700일 회향식이 봉행됐다.

16일 실상사에서 봉행된 1000일 기도 700일 회향식에서 실상사 주지 도법스

님은 "2001년 2월 16일부터 시작된 1000일 기도는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지역, 종교, 이념의 큰 벽을 허물고 민족의 대화합을 모색하는 한마당으로 자리매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경남 함양신협 3층에서 700일 회향 기념 장회의 녹색대학 총장(전 서울대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도 개최됐다.

남동우 기자

우리결 우리 신도

빛나지 않으며 빛나는 '淸듀엣'

서울 일광사 이정진·김옥빈 보살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님아... 울-었소, 소리 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구성진 노랫가락, 서울 망우동 일광사 공양간이 들썩인다. 수요노인잔치가 있는 날, 아침부터 이 지역 독거노인 50여 명이 몰려 들었다. 일찌감치 노인들은 길게 늘어선 채 기다리면서도 잔뜩 흥을 돋운 주지 보혜스님의 노래에 웃어댄다.

빛나지 않으면서 빛나는 일광사 '淸(淸) 듀엣', 이정진(55, 청행심)·김옥빈(41, 청정심) 보살. 부지런히 음식을 식판에 담는다. 새벽부터 잔치 준비를 했지만, 입소문이 퍼져 먼 곳에서까지 몰려든 노인들로 인해 손놀릴 시간이 없다. 그래도 미소는 잊지 않는다.

이정진 보살, 이렇게 수요노인잔치 봉사활동을 한 지도 벌써 10년째다. 일광사가 20년 전부터 매주 수요일에 노인잔치를 열어 왔으니, 절반의 세월을 함께 해온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도관리에서부터 공양 간 먹거리

구입, 각종 행사 준비까지 이 보살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때문에 일광사에서는 이 보살을 '질 귀신'이라고 부를 정도다.

"천권의 책을 읽는 자는 바보요, 단 한번의 실천을 한 자는 명인이다"라는 회주 일광스님의 법문을 듣고,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어려운 사람을 섬긴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이 보살은 가족신행으로도 칭찬이 자자하다. 남편 김경호(58, 재가) 씨는 거사불교회 활동을, 딸 윤경(26) 씨는 대학재학 시절 불교학생회 회장을 맡는 등 온 가족이 불자다.

또 한 명, 김옥빈 보살. 일광사 '지역 사랑관'이다. 17년째 '작은 사랑, 큰 기쁨' 운동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일광사 '사랑의 쌀 나누기' 활동의 선봉장이기 때문이다. 전국을 돌며 독거 장애인 집을 방문해 청소, 빨래 등 허드렛일을 도맡는 것도 모자라, 현장을 진두지휘(간)한다고 해서 자비회 회원들이 붙여 준 애칭이다.

이정진 수요노인잔치 봉사 10년 '질귀신'

김옥빈 사랑의 쌀나누기 활동 선봉장

"15년 전쯤 겨울이었고, 첫 방문을 나갔을 때였어요. 차매를 알고 있는 어르신이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계시더군요. 순간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양말 한 짝만 헤쳐도 버려왔던 제 자신을 돌아켜 보니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불자라면, 저절로 봉사하는 마음이 우러나 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비행을 실천하는 이정진, 김옥빈 보살, 두 보살에게서 당당함이 느껴졌다.

김철우 기자



◁"어르신! 부족하진 않아요. 더 갖다 드릴까요?" 일광사이정진(맨 왼쪽), 김옥빈(왼쪽세 번째) 보살이 자상하게 묻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추천의 말

보혜스님 일광사 주지

봉사는 볼 것을 안 보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둘러보고 재다보면 생각만 많아져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정진, 김옥빈 두 보살은 진정한 의미의 보살

일광사의 두 보배

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것도 소처럼 우직할 정도입니다. 전국을 누비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눠주고, 독거 어르신들에게 '수요일의 기쁨'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두 보살은 일광사의 신도관리와 각종 행사까지 도맡는 보배들입니다.